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의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¹가천대학교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²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³한국국제대학교 제주캠퍼스, ⁴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나혜수¹ · 이선구² · 백강민³ · 임우영⁴ · 강승걸¹
조성진¹ · 나경세¹ · 강재명¹ · 조서은¹ · 배승민¹

Factors Influencing Sexuality Knowledge and Gender Sensitivity During Adolescents and Early Adulthoods

Hae Su Na, M.D.,¹ Sun Goo Lee, Ph.D.,² Kang Min Baek,³
Woo Young Im, M.D., Ph.D.,⁴ Seung-Gul Kang, M.D., Ph.D.,¹
Seong-Jin Cho, M.D., Ph.D.,¹ Kyoung-Sae Na, M.D., Ph.D.,¹
Jae Myeong Kang, M.D.,¹ Seo-Eun Cho, M.D.,¹ Seung Min Bae, M.D., Ph.D.¹

¹Department of Psychiatry, Gil Medical Center,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cheon, Korea

²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³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 Jeju, Korea

⁴Department of Psychiatry, Konyang University Hospital, Daejeon, Korea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vel of sexuality knowledge and gender sensitivity and factors influencing on them among Korean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Methods : 129 questionnaires from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with consent forms, collected from July to December of 2022, were analyzed. After identification of participants' gender, age, major, their report of the practicality of sex education, and their experience of violence or sexual assaults, participants' level of sexuality knowledge and gender sensitivity were compared.

Results : Females showed higher gender sensitivity, regardless of age and group ($p=0.004$). The early adulthood group (≥ 19 years old) showed higher sexuality knowledge and gender sensitivity, compared to those adolescents (< 19 years old). Among college students, those who majored in health science were identified with higher sexuality knowledge and gender sensitivity, compared to non-health science major students ($p < 0.001$; $p = 0.005$).

Conclusions : This study reveal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xuality knowledge and gender sensitivity according to sex, age, and majors in adolescents and early adults. Therefore, it seems to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differences in sexuality knowledge and gender sensitivity among age, sex, and majors when establishing public policy or legislation for sex crimes, including digital sex crimes.

KEYWORDS : Sexuality knowledge; Gender sensitivity; Adolescents; Early adulthoods.

Received: June 3, 2023 / Revised: June 19, 2023 / Accepted: June 21, 2023

Corresponding author: Seung Min Bae, Department of Psychiatry, Gil Medical Center,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1 Namdong-daero 774 beon-gil, Namdong-gu, Incheon 21565, Korea
Tel : 032) 433-1295 · Fax : 032) 434-1295 · E-mail : mdbaegilhospital.com

서론

2020년 소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로 ‘제2의 N번방 사건’까지 국내에 여러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였을 뿐 아니라, 가담한 가해자들 중 일부도 10대로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¹⁾ 또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사건들 중에서 종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범인이 미성년자로 밝혀지는 등 10대의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²⁻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뒤늦게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등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법적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범죄의 양상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는 늘어나고 있으며, 미성년자가 가해자일 경우엔 더욱 범죄 수준에 비하여 처벌이 경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회적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⁵⁾

더구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해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보고되는 피해와 지원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⁶⁾ 2022년에 해당 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 수는 전년 대비 1.15배 증가한 7979명, 피해 영상물은 21만건에 달하였는데, 피해자의 연령대는 10대와 20대가 전체의 3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이 특히 빨라 디지털 성범죄의 노출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⁷⁾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성폭력 범죄에 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디지털 성범죄 가해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7,8)} 게다가 국내의 사례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청소년들 대부분이 본인이 한 일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여 개선의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고, 디지털 미디어 상에서 만연한 혐오성 언어, 성적 대상화 등으로 스며든 왜곡된 성인식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⁹⁾ 이렇게 우리 사회의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 인구가 왜곡되거나 범죄화된 성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에서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정신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특히 사회에 주도적 인력으로 진입하게 되는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의 향상이 필요할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란 성과 관련된 이슈를 인지하는 능력, 즉 성별의 차이로 인한 영향과 차별적이

거나 불평등한 상황을 인지하는 광범위한 능력을 말한다.¹⁰⁾ 이와 유사한 용어로 성인식, 젠더감수성, 성태도, 성평등 의식 등이 여러 분야에서 혼용되어 왔으나, 2018년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체계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학계에서도 공용 용어로 자리잡게 되었다.¹¹⁾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은 일반적으로 이성관계를 맺고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청소년기인 고등학생과, 의미 있는 관계를 다양하게 확장해 나가는 초기 성인기인 대학교 시기에 확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 대다수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였으나¹²⁻¹⁵⁾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 대상의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단일 대학의 제한된 표본 하에서만 진행되었다는 면에서 연구 결과의 해석에 제한점이 있었다. 이중 단일 대학 내 다양한 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성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관련 강의 수강 여부는 성인지 감수성의 평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경향성이 보고되기도 하였고,¹³⁾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지식 수준¹⁶⁾ 및 사회성과 자아존중감¹⁷⁾이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선행 연구들 간에 일관된 연구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미성년자 대상의 연구는 성인 대상의 연구보다 더 드물어, 국내 선행 연구 중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가장 어린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단일 학교 내 10대 초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른 연령대의 성별 비교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⁴⁾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 연구의 결과¹⁶⁾와 달리 성지식 수준이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¹⁴⁾ 역시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보았을 때, 국내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자료는 통합적인 결과를 도출하기에 부족하며, 특히 성인지 감수성의 형성과 확립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를 여러 기관의 표본을 포함하여 살펴본 연구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최근 증가하는 10대와 20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및 가해 사건들의 예방과 초기 개입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들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남녀 성지식 수준과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파악하고, 앞서 살펴 보았듯이

선행 연구들에서 영향 요인으로 일관성을 찾지 못한 자아 존중감을 포함하여 이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방 법

1.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단일 학교 내 모집의 한계와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국내 다른 지역 2개의 고등학교와 2개의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대학의 경우 보건계열 전공자가 다른 전공의 대학생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 결과¹⁸⁾를 고려하여 1개의 보건의료계열 전공과와 1개의 비보건계열 전공과에서 각각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연구대상자와 연구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모두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법정대리인에게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구득하였다. 설문은 온라인 링크를 통해 2022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모든 데이터는 익명으로 분석하였으며, 가천대 길병원 임상연구 윤리심의위원회(승인번호: GAIRB2002-192)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2. 평가 도구

사회인구학적인 자료로 연령, 성별, 소속과 전공(고등학교, 보건의료계열 전공 대학교, 비보건의료계열 전공 대학교)을 조사하였다.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성교육의 수강 유무를 확인하고, 성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의 실용성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추가적으로 이성 혹은 동성과의 교제 경험, 최근 6개월 이내에 성적 의도를 가진 사진 및 동영상 시청 경험과 폭력 및 성적 피해 경험의 과거력을 파악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은 아래의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1) 자아존중감 검사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는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관련 연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¹⁹⁾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번안되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²⁰⁾ 이 자기보고식 설문지는 총 10 문항으로, 각각 5개의 긍정

및 부정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부정 문항은 역채점되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

본 연구에서는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의 평가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중학교 대상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를 기반으로 개발된 성교육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자가보고식 평가도구는 성지식과 성태도에 대한 문항이 각각 31개, 2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의 평가가 필요한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²¹⁾ 각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통계분석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성별과 연령군, 대학 전공에 따른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을 비교하기 위해 변수에 따라 chi-square test와 Mann-Whitney test를 시행하였다. 또한 연령과 자아존중감,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의 상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 통계 프로그램(SPSS Inc.,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140명의 설문 응답자 중, 문항 답변이 불충분하여 통계적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응답자 11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12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대상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71명(55.0%), 여성이 58명(45.0%)으로, 설문시점에 이들의 평균 나이는 19.35세(SD±3.46)였다. 재학 상태는 고등학생이 52명(40.3%), 대학생이 77명(59.7%)이었는데, 이중 대학생들의 전공은 보건의료계열이 45명(34.9%), 비보건의료계열이 32명(24.8%)이었다.

성교육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 중 성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군은 128명(99.2%)으로, 응답자 중 1명을 제외한 거의 전원이 성교육을 들은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성교육의 실용성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서는 1점('매우 불만족') 8명(6.3%), 2점('불만족') 27명(21.1%), 3점('보통') 45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9)

	Sex (n, %)		p
	Male (n=71)	Female (n=58)	
Age group			0.965
< 19 years	34 (47.9)	28 (48.3)	
≥ 19 years	37 (52.1)	30 (51.7)	
Education level (college of major)			0.167
High school	31 (43.7)	21 (36.2)	
College (medical)	27 (38.0)	18 (31.0)	
College (non-medical)	13 (18.3)	19 (32.8)	
Taking sex education			0.253
Yes	71 (100)	57 (98.3)	
No	0 (0)	1 (1.7)	
Satisfaction level of the sex education (n=128)			0.205
1 (very unsatisfied)	7 (9.9)	1 (1.8)	
2 (unsatisfied)	16 (22.5)	11 (19.3)	
3 (neutral)	20 (28.2)	25 (43.9)	
4 (satisfied)	20 (28.2)	15 (26.3)	
5 (very satisfied)	8 (11.3)	5 (8.8)	
Dating experience			0.381
Yes	45 (63.4)	41 (70.7)	
No	26 (36.6)	17 (29.3)	
Watched sexual photos or videos within 6 months			<0.001*
Yes	64 (90.1)	27 (46.6)	
No	7 (9.9)	31 (53.4)	
Experience of non-sexual violence			0.73
Yes	5 (7.1)	3 (5.3)	
No	66 (92.9)	55 (94.7)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0.001*
Yes	1 (1.4)	15 (26.8)	
No	70 (98.6)	43 (73.2)	

*p<0.05

(35.2%), 4점(‘만족’) 35명(27.3%), 5점(‘매우 만족’) 13명(10.2%)로 답변하여, 만족도 수준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이성 혹은 동성과 교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군은 86명(66.7%), 교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군은 43명(33.3%)이었다. 최근 6개월 내에 성적 의도를 가진 사진 및 동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9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0.5%에 해당하였는데, 이들의 성별은 남성이 64명, 여성이 27명으로 각각 전체 남성의 90.1%, 전체 여성의 46.6%였으며, 재학 상태는 대학생이 55명, 고등학생이 46명으로 각각 전체 대학생의 71.4%, 전체 고등학생의 88.5%에 해당하였다.

성폭력을 제외한 폭력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8명(6.2%)으로, 이들의 성별은 남성 5명, 여성 3명, 재학 상태는 대학생 7명, 고등학생 1명이었다. 성적인 폭력을 경험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자는 1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2.4%에 해당했으며, 이들 중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의 성별이 여성이었고, 재학 상태는 대학생 8명, 고등학생 8명이었다.

2. 성별과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연관성을 보인 항목은 ‘최근 6개월 내에 성적 의도를 가진 사진 및 동영상 시청 경험’와 ‘성피해 경험’, 성인지 감수성의 수준이었다. “최근 6개월 내에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여성은 27명(64%), 남성은 64명(90.1%)로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chi^2=29.188, p<0.001$), “성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대상자는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여성(15명, 26.8%)으로, 거의 대다수의 성피해 경험자가 여성이었다($\chi^2=18.044, p<0.001$). 수강한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p=0.205$), 이성 혹은 동성과의 교제 경험($p=0.381$), 폭력 노출의 경험($p=0.73$) 항목은 성별과 연관성이 없게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연령,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928; p=0.483$), 성지식 또한 여성 22.02 ± 4.30 점, 남성 21.52 ± 4.42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618$).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의 경우 여성 18.79 ± 1.99 점, 남성 17.44 ± 2.66 점으로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4$) (Table 2). 성별의 차이가 나타난 답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지식의 총점에서는 성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설문 문항 중 신체구조 및 위생개념, 성역할 고정관념, 성상품화 항목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성인지 감수성은 전체 점수와 성기에 대한 인식, 교제와 결혼 및 가정, 가정 내 성 역할 구분, 이성교제, 성 차별에 대한 인식을 항목에서 여성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추가적으로, 성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16명 중 15명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피해 경험 여부가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성 집단 내에서 다시 성피해 경험 여부에 따라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에서의 성지식(22.62 ± 2.80 점; 21.56 ± 4.69 점, $p=0.498$)과 성인지 감수성(18.27 ± 1.79 점; 18.95 ± 2.01 점, $p=0.169$)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연령과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

대상자를 국내의 미성년 기준에 따라 19세 미만의 미성년군(62명), 19세 이상의 성인군(67명)으로 연령을 분류하

Table 2. Self-esteem, sexual knowledge and gender sensitivity

	Sex (mean±S.D.)		p
	Male	Female	
Age	19.49±3.76	19.17±3.09	0.928
Self-esteem	3.75±0.75	3.68±0.73	0.483
Sexual knowledge	21.52±4.42	22.02±4.30	0.618
Gender sensitivity	17.44±2.66	18.79±1.99	0.004*

*p<0.05

Table 3. Self-esteem, sexual knowledge and gender sensitivity according to age group

	Age group (Mean±S.D.)		p
	<19 years	≥19 years	
Self-esteem	3.57±0.83	3.85±0.62	0.087
Sexual knowledge	19.42±4.29	23.90±3.17	<0.001*
Gender sensitivity	16.82±2.47	19.18±1.87	<0.001*

*p<0.05

여 분석하였다. 이 두 집단 간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087), 성지식은 각각 19세 미만의 연령군에서 평균 19.42±4.29점, 19세 이상의 연령군에서는 23.90±3.17점으로, 성인지 감수성은 각각 19세 미만의 연령군에서 평균 16.82±2.47점, 19세 이상의 연령군 19.18±1.87점으로 두 지표 모두 19세 이상의 연령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Table 3).

일반적 특성 중 두 연령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는 교제 경험에 대한 응답이 있었는데, 미성년자 중 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6명(58.1%), 없는 경우가 26명(41.9%)이었으나, 성인군에서는 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 50명(74.6%), 없는 경우 17명(25.4%)으로 19세 이상에서 더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교제 경험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미성년과 성인 두 군 모두에서 교제 경험의 여부는 성지식,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364; p=0.107).

연령을 연속변수로 하여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연령의 영향성은 확인되었는데, 연령과 성지식, 연령과 성인지 감수성 및 연령과 자아존중감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각각 r=0.510, p<0.01; r=0.477, p<0.01; r=0.292, p<0.01),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 사이에도 양의 상관관계(r=0.433, p<0.01)가 관찰되었다(Table 4).

4. 전공과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

응답자 중 성인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전공(보건의료계열 및 비보건의료계열)에 따라 추가적으로 분석한 자아존중감, 성지식, 성인지 감수성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성

Table 4. Correlation among age, self-esteem, sexual knowledge and gender sensitivity

	Age	Self-esteem	Sexual knowledge	Gender sensitivity
Age	1			
Self-esteem	0.292**	1		
Sexual knowledge	0.510**	0.105	1	
Gender sensitivity	0.477**	0.211*	0.433**	1

*p<0.05; **p<0.01

Table 5. Self-esteem, sexual knowledge and gender sensitivity according to college major

	College Major		p
	Medical	Non-medical	
Age*	22.62±2.72	19.81±2.12	<0.001
Self-esteem	3.90±0.74	3.82±0.63	0.652
Sexual knowledge*	24.96±2.60	21.53±3.20	<0.001
Gender sensitivity*	19.44±1.73	18.16±1.95	0.005

*p<0.05

지식은 각각 보건의료계열 전공 대학생(24.96±2.60점), 비보건의료계열 전공 대학생(21.53±3.20점), 성인지 감수성은 각각 보건의료계열 전공 대학생(19.44±1.73점), 비보건의료계열 전공 대학생(18.16±1.95점)으로 보건의료계열 전공자들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p=0.005). 자아존중감 문항은 전공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652) (Table 5).

고 찰

본 연구는 성적 정체성과 더불어 성 인식이 정립되어가는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국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여러 선행 연구 결과들¹²⁻¹⁵⁾과 일관되게 여성에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성지식의 수준은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지식 설문 항목 중 “남성스럽다” 또는 ‘여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성역할 고정관념이다.” 문항과 “포르노는 인간의 억압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예술물이다.”의 역채점 문항에서는 여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특히 성인지 감수성과도 관련된 질문이라는 점에서 성별 간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성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의 93.8%가 여성이라는 결과는, 여전히 대다수의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최근 10대와 20대의 디지털 성범죄

죄 피해 보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이가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점 외에도 최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과거보다 개선된 신고의식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⁷⁾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성피해 경험 차이 여부가 성인지 감수성과의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선행연구²²⁾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성피해 경험과 높은 성인지 감수성의 관련성이 보고된 다른 연구 결과들²³⁻²⁵⁾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성피해 경험자의 표본 수가 16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분석 결과를 보면, 미성년인 청소년기 집단에 비해 성인 집단에서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기존 초등학교와¹⁵⁾ 대학교¹³⁾에서 각각 학년 별로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가 없고 반대로 20세 이상의 성인집단 연령이 어릴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¹⁷⁾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청소년기와 성인 집단 간의 단순한 연령 차이로 해석하기보다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가 일어난 것으로 유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만 차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이를 목표로 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기존 국내의 연구들이 모두 일도시 내 또는 같은 교육 수준의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미성년자와 성인 집단간의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따라서 향후 더 다양한 지역과 더 큰 표본 수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한다면, 연령별로 다른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접근을 고려한 교육과 정책의 개발과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는 경향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집단과 성인기 집단 두 연령 군으로 나누어 자아존중감을 비교하였을 때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의 경우 성인기에서도 연령에 따른 변화와 차이가 있다는²⁶⁾ 결과를 토대로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고, 자아존중감과 연령, 성인지 감수성에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양성 평등 의식 및 성적 자율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들^{27,28)}과는 유사한 결과이긴 하나 Joo 등¹⁷⁾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이러한 선행 연구의 이질성들과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이 요인들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후 다양한 연령의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 집단 내에서는 보건의료계열 전공자들이 비보건의료계열 전공자들에 비해 높은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기존 Doo와 Seo¹⁸⁾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다른 선행 연구¹³⁾에서도 단과대학의 소속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 차이가 있고,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이 일부 성인지 감수성 항목에는 도움이 된다고 한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 대학생의 경우에는 소속 및 전공을 고려하여 맞춤형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론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조사한 대학생 집단은 각각 1개 대학교의 보건의료계열 전공자들과 1개 대학교의 비보건의료계열 전공자들로, 전체 보건의료인 및 비보건의료인을 대표하기엔 한계가 있다. 둘째,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자가보고식 설문을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선택 편향의 가능성이 있다. 셋째, 성인지 감수성과 연령, 성지식, 자아존중감 사이의 상관관계는 확인했으나, 그들의 관계와 영향력의 정도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유의한 변수들에 대해 다중회귀분석 등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일부 연구에서 성인지 감수성과의 연관성을 지적한 성폭력 피해 경험의 유무가 본 연구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수로 인한 결과일 수 있어, 향후 더 많은 대상자군을 대상으로 하여 이의 영향 가능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선행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성 역할 고정 관념이 성인지 감수성과 음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거나,¹²⁾ 부모의 성태도와 자녀의 성지식, 성태도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나타나기도 하였다.²⁹⁾ 본 연구에서는 설문 대상자가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들로, 그들의 부모에 대한 설문은 진행되지 않아 이와 같은 부모의 요소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도 성인지 감수성은 성장 과정 중 여러 환경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파악하지 못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겠다.

마지막으로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들로부터 설문의 항목의 현 시대에 적절하지 않으며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일부 대상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특히 결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도구는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설문지로 개별적으로 개발된 것을 각각 사용하였으나, 문항분석상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를 시사하기도 하였다. 성인지 감수성 개념 자체가 일부 성 지식적인 면을 포함할 수 있는 항목임

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상태의 응답자들에게 정확한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 시기인 국내 고등학생,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파악하고 성별, 연령, 대학 전공 등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이러한 차이와 그 의미의 고찰이, 향후 더 많은 수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함께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빠른 확산과 청소년과 초기 성인기의 성범죄 피해 및 가해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정책의 고려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None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1) **Asia Economy Daily (homepage on the Internet)**. (updated 2020 May 26; cited 2020 May 26). Available from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52610584888306>.
- (2) **YTN (homepage on the Internet)**. (updated 2020 Jul 10; cited 2020 Jul 10). Available from https://www.ytn.co.kr/_ln/0115_202007102321490290.
- (3) **Asia Economy Daily (homepage on the Internet)**. (updated 2020 Dec 04; cited 2020 Dec 04). Available fr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804145?sid=102>.
- (4) **MONEYTODAY (homepage on the Internet)**. (updated 2022 Oct 24; cited 2022 Oct 24). Available fr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2415451866203>.
- (5) **Jeon YJ**. Institutionalization of digital sex exploitation materials regulation-focusing on the ‘telegram n chatting room’ issue.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 2021;13:1-29.
- (6) **Sin BR**. 2022 Digital Sex Crime Victims Assistance Report.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2023. p.11-24. Available from https://www.stop.or.kr/multicms/multiCmsUsrList.do?atgory=pd&srch_menu_nix=nFog4NJ7.
- (7) **Kang EY**. Korean Social Trends 2020.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2020. p.347-349. Available from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90104010301&bid=12312&act=view&list_no=386905.
- (8) **Lee JB**. A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of the nth room incident prevention act for the eradication of digital sex crimes. *The Journal of Police Science* 2022;22:159-186.
- (9) **Go JE, Lee MH, Kang JG, Kim HY**. Youth Digital Sexual Assault Counselor case analysis. *Aha Sexuality Education & Counseling Center for Youth*;2021. p.1-48. Available from https://aha-center.kr/dat_cat/data/page/2/.
- (10) **Lee HJ, Oh SY, Kim ES**. A study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wareness of gender sensitivity.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8; 23:169-194.
- (11) **Kim WK**. Legal validity of ‘gender sensitivity’ from a perspective of the sociology of law. *Korean Journal of Gender and Law* 2023;14:95-121.
- (12) **Ah YA**. The effects of gender role stereotypes of parents a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the gender sensitivity of adolescent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020;51:79-98.
- (13) **Choi YM, Jung HY**. An analysis of gender sensitivity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a survey targeting k university students. *KNU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020;34.2:65-89.
- (14) **Lee GY**.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ity knowledge and gender sensitivity in ear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1;21:371-383.
- (15) **Kim KS, Kim HG, Sun WH**. A study of gender sensitivity differences based on gender and grade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22;13:705-720.
- (16) **Cho YM, Lee J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and gender suscepti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0;18:221-228.
- (17) **Joo KS, Kim KM, Lee JP**.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ity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on gender sensitiv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 20:213-229.
- (18) **Do ES, Seo YS**. Factors influencing sexual autonomy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3; 20:129-136.
- (19) **Baik JS**. Attachment to parents: relationship to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2000;18:127-138.
- (20) **Lee JY, Nam SK, Lee MK, Lee JH, Lee SM**.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alysis of item-level valid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9;21:173-189.
- (21) **Yang SO, Kim SJ**.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tool for middle school student sex educatio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04;10:332-339.
- (22) **Ju HJ, Lee SK**.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during clinical practice, gender sensitiv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2;23:361-369.
- (23) **Kwak YH, Jeong WC**.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experience of maltreatment and gender sensitivit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018;44:51-73.
- (24) **Mun JY**. The effect of gender sensibility on dating violence risk perception in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iency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

- cial Welfare, Graduate School, Silla University; 2020.
- (25) **Lee DS, Lee MK.** The influences of gender sensitivity and sexual assertiveness on dating sexual violence experience among fe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2022;26:67-75.
- (26) **Yoo CM.** A decade of changes in two dimensional self-esteem: a life course perspectiv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8;38:7-44.
- (27) **Moon JH, Choi SE.** The effect of sexual egalitarianism, self-esteem, sexual communication on sexual autonomy in college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20:1371-1384.
- (28) **Kim HY.** Influence of sexual attitude, gender stereotype and self-esteem on gender egalitarianism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1; 22:482-491.
- (29) **Kim NH, Park YJ, Jung HS.**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2015; 7:17-42

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 시기에 해당하는 국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의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2022년 7월부터 동년 12월까지 2개의 고등학교와 2개의 대학교(보건계열 전공 및 비보건계열 전공)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129명의 설문 답변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연령, 전공 및 대상자들이 보고하는 수강한 성교육의 실용성, 교제 경험, 폭력 및 성적 피해 경험,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각 집단 별로 확인하였다. 이후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결과

모든 연령과 집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4$). 청소년기 집단에 비해 초기 성인기 집단에서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 높았으며($p<0.001$; $p<0.001$), 연령과 성지식, 성인지 감수성 수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집단 중에서는 보건의료계열 전공자들이 비보건의료계열 전공자들에 비해 높은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보고하였다($p<0.001$; $p=0.005$).

결론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에서 성별, 연령, 전공에 따라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와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및 가해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의 연령별, 성별, 전공별 차이를 고려하여 이들의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겠다.

중심 단어 :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 성지식; 성인지 감수성.